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중·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전자안전하이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과학기술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한재각: 723-4255 hanck@pspd.org)
제 목 시민과학강좌 개설: 생명공학 사회에 대해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
날 짜 2000. 3. 21. (총 2 쪽)

보도 협조 요청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시민과학강좌 개설 당신의 미래를 유전자조작 한다? — 생명공학 사회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

3월 31일(금)부터 5주 강의,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참여사회 아카데미 2000년 봄 강좌에서 시민과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당신의 미래를 유전자조작 한다 — 생명공학 사회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며, 3월 31일(금) 7시반부터 1주일 1회씩 5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비판가로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 및 반다나 시바의 사상과 주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김동광과 한재각의 강의를 비롯하여, 생명공학과 농업문제, 생명공학 분야의 시민참여를 이루어낸 한국 합의회의, 한국 생명공학감시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비는 4만원이며, 문의는 02-723-5304(최현주)나 academy@pspd.org.
2. 1997년 복제양 돌리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도 생명공학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의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 논쟁, 표시제 도입 여부 등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전자조작 곡물 및 종자의 무역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채택되어,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으며, 또

한 유전자조작 곡물의 수출입량도 대단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는 대단히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생명공학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쟁점이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해보는 시민과학강좌를 마련했다.

3. 시민과학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생명공학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제레미 리프킨

김동광 과학세대 대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시민교육위원장

4/7 생명특허 - 자연과 지식의 약탈 : 반다나 시바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상근활동가

4/14 생명공학은 농업의 미래인가?

허남혁 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간사

4/21 생명공학,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합의회의

김환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대표, 한국합의회의 프로젝트 책임자

4/28 한국의 생명공학감시운동의 현황과 과제

박병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사무국장. 끝.